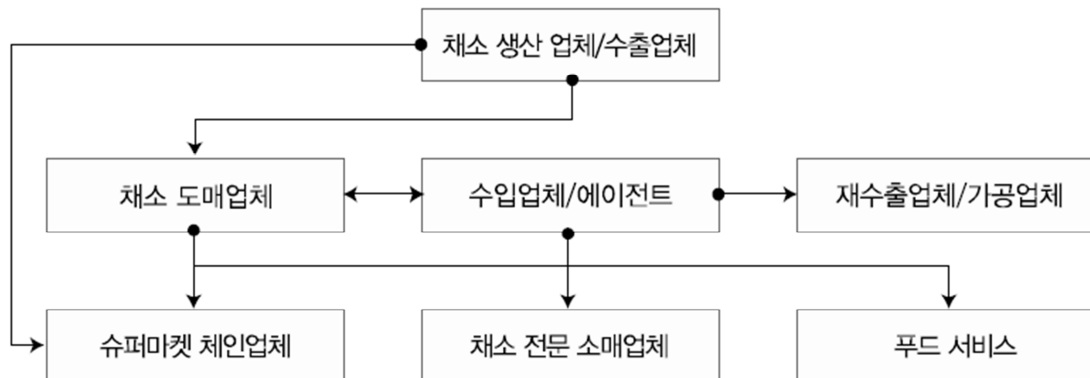


■ 네덜란드 유통동향



○ 네덜란드의 신선 채소 및 채소의 유통구조는 생산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3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특히 수입 채소의 경우는 네덜란드산 채소보다 유통 단계가 1단계 더 짧음

○ 네덜란드 그리너리(Greenery) 판매협동조합은 1996년 과일과 채소 경매 조합 11곳 중 9곳이 합병되어 설립

- 그리너리는 가격 변동이 큰 경매 방식으로는 슈퍼마켓이 원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좀 더 향상된 마케팅과 상품 판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였고, 유럽은 물론 세계적인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슈퍼마켓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설립

- 그리너리는 유럽의 과일·채소·버섯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며 조합원에게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취값을 제공하고 합리화된 투자 자본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전략 목표

- 생산자들은 그리너리 판매협동조합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식품원에 네덜란드라 불리는 생산자연합(VTN) 협동조합에서 조직

- 생산자들이 그리너리 판매협동조합의 목적과 전략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음
- 이로 인해 생산자는 모든 생산품을 그리너리 판매협동조합에 보내고, 그리너리 판매협동조합은 생산자의 상품을 가능한 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할 의무를 지님
- 그리너리는 생산에서 소매까지 체계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연중 신선 채소와 과일·버섯을 시장에 공급
- 이는 자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5개 대륙에서의 수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
- 그리너리 판매협동조합의 연중 공급 체계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전문 생산자와의 장기 계약의 기반이 되고 있음
- 특히, 그리너리의 모든 농산물은 생산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
-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품질·크기·중량 등의 기준 아래 분류, 포장
- 이때 농산물이 최종 소비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
- 포장 작업이 끝난 상품은 경매장이나 직접 소비지에 배송되고 있음
- 그리너리는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품질관리와 운송·포장의 인증 제도를 개발
- 아울러 상품의 위생을 중시하며 상품 마케팅 부문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, 종자 회사와

함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가 하면, 시장과 슈퍼마켓·상품·소비자 행동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음

-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슈퍼마켓들로 하여금 그리너리 판매협동조합을 농산물 공급자로 선택하게끔 함